



중국인수생명, 상반기 당기순이익 하락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인수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.5% 하락한 97.4억 위안을 기록함.

- 당기순이익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보험시장 감독규제 강화로 인한 보험영업수익 하락 및 배상금액 증가, 은행 재테크상품 경쟁으로 인한 방카슈랑스 해약률 상승, 자본시장 불황으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하락 등임.
 - 상반기 보험영업수익은 1,847.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.2% 하락한 반면, 지급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각각 494.8억 위안, 189.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.8%, 7.2% 상승하였음.
 - 또한, 상반기 운용자산 규모는 16,616억 위안으로 전년 말 대비 11.2% 증가하였지만 자본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수익률은 전년동기의 6.2%에서 2.8%로 하락하였음.
- 중국인수생명의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32.4%(상반기 수입보험료 1,854.4억 위안)

■ 한편, 태평양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0.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2.1% 하락하였으며 PingAn생명의 당기순이익은 70.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.0% 소폭 상승함.

- 상반기 PingAn생명 및 태평양생명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789억 위안, 539.6억 위안을 기록하여 생명보험시장에서 13.8%, 9.4%의 시장점유율로 2, 3위를 차지하고 있음.
- 태평양생명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요인은 해약환급금 증가(전년동기대비 58.4% 증가한 61.8억 위안).
- PingAn생명은 보험영업수익(5.3%) 및 운용자산 수익(4.6%)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소폭 상승하였음.

(신량망, 하원망, 8/29 등)